

포스코 ‘Pos-H’, 규모 7.0 지진도 버틴다

세계 최고 보높이 1500mm서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
최대 30% 구조부재 물량 절감

포스코의 이노빌트 대표 제품 중 하나인 Pos-H가 최고의 내진성능을 가진 강구조솔루션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Pos-H는 고객이 필요한 최적의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용접형 강으로 포스코의 내진용 후판 및 열연으로 제작해 내진성을 강화했다. 주로 대형 건축구조물의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樑)와 기둥으로 사용된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되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고, 하중이 큰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건설사의 원가절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 대비 높이가 확대된 Pos-H를 대형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부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욱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송도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강구조 실험실에서 실시된 세계 최고 보 높이 1500mm Pos-H보·기둥 접합부 내진 실험 장면(대규모의 지진력이 작용하더라도 보와 기둥의 파단 없이 보가 끝까지 지진에 견디는 것을 볼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28일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Pos-H를 이용한 세계 최고 보 높이1500mm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 내진성능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을 받았다.

전세계 건축구조 분야의 기준을 만든 미국에서도 특수 모멘트 접합부로 인증받은 보 높이는 최고 1400mm이나, 실제 사용이 가능한 최고 보 높이는 920mm 임을 감안하면,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보 높이에 대해 최고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내진성능은 건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가 지진충격에 견디는 종합적인 성능을 의미한다. 건축물 설계 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와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강화하게 되는 데, 이때 보·기둥 접합부의 성능이 전체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보·기둥 접합부는 지진 발생 시 건

물이 안전하게 좌우로 변형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내진성능이 낮은 ‘보통 모멘트 접합부(Ordinary Moment Frame)’, 중간 수준인 ‘중간 모멘트 접합부(Intermediate Moment Frame)’,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부(Special Moment Frame)’로 구분된다. 즉, 내진 성능이 높을수록 연성이 좋아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고, 큰 폭으로 유연하게 변형되는 것이다.

포스코가 이번에 인증받은 ‘특수 모멘트 접합부’를 건축물에 적용하면,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하며, 내진성능 인증이 없는 ‘일반 모멘트 접합부’보다 최대 30%까지 구조부재 물량 절감이 가능하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인증받은 접합부에 대해 지난 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포스코의 특수 모멘트 접합방식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 대비 단순하고 제작이 용이해 공기 단축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해 벌써부터 설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김성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주말 체험프로그램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토, 일, 공휴일 명랑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 페인팅, 이순신 장군 칼만들기, 토기, 강아지 등 동물모양 풍선만들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뇌하는 이순신 탁본만들기 등 3종의 유료 체험을 할 수 있다.

우수영관광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아슬아슬한 바다위를 걷는 스카이워크(무료)와 울돌목 해상을 가로지르는 명랑해상케이블카(유료)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양시

백운산 ‘숲속 캠핑 축제’

광양백운산자연휴양림은 ‘2023 전라남도 숲속 캠핑 축제’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광양시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캠핑인 150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5월의 백운산 별빛 여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캠핑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

영유아 급·간식비 확대 지원

부산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를 확대(총 51억 원) 지원한다.

부산시는 5월부터 정부가 보육료를 통해 지원하는 1일당 영아(0~2세) 1900원, 유아(3~5세) 2500원의 급·간식비와는 별도로 1인당 급·간식비를 1일당 400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인당 급·간식비를 월 6000원(일 300원, 20일 기준) 추가해 지난 4월 기준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1461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만 8000여 명에게 지원비를 제공했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강영석 상주시장이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로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영석 시장은 “오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시민 의견수렴,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입지분석 자료 등에 근거해 건립 부지를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했다”며, “상주시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이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월출동에 46.2만㎡ 규모
총 사업비 2671억 투입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는 북구 월출동 일원에 46만2000㎡(약 14만 평) 규모의 ‘의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의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2671억원(용지비 1188억원, 조성비 897억원, 기타 58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광주의료특화(헬스케어)산업단지를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전략적 디지털정밀 의료도시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로 이뤄지며, 광주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

쳐 산업단지 지정 신청, 그린벨트 해제,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특화 산업단지는 지역기업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기술과 융합 고도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고,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취지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의료특화산단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546억원, 부가가치 671억원, 소득유발 379억원, 신규 일자리 1200여명으로 분석했다.

또,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입현매립지, ‘경남 대표 우수습지’ 지정

3년간 도비 50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 우선 지원

남해군 입현매립지가 올해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신규 지정됐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 습지 가운데 하나인 남해읍 입현매립지가 경남도 습지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습지로 최종 지정됐다.

입현매립지는 남해읍 입현리 406-7번지 일원에 64만 6864㎡ 면적으로 형성돼 있으며, 남해군 내륙습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모두 형성된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육상과 해양 환경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습지 생태계로 이뤄졌다.

또 남해바래길 본선 1코스 바래오 시다길과 국가생태탐방로 예코파크길, 해안자전거 2코스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떠올 수 있는 곳이다.



입현매립지 전경. /남해군

지난 9일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습지보전위원회에서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입현매립지가 검은물떼새, 큰고니 등 멸종 위기종들의 주요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번식지로도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태 공간임에 주목하고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기간은 2023일 5월부터 3년간이며, 이와 관련해 지정 기간 도비 5000만원을 비롯해 자연보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우선 지원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국 최대 수상종합지원단지 준공

생산에서 어업인 지원 기능까지

목포시가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의 준공식과 어업인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함께하고 본격적인 수산업 도약을 예고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총 10개동으로 대지면적 10만2천㎡, 연면적 2만8천㎡, 총사업비 752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이다.

목포시와 목포수협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북항 배후부지에 생산·유통·판매·물류·지원 기능의 수산시설을 집적한 이곳은 생산에서부터 어업인 지원 기능까지 국내 최

대 수산종합지원단지로서의 면모를 자랑한다.

목포 수산업의 향후 100년을 이끌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에는 수산물 선도를 책임질 저온위판장은 물론, 어업경영을 지원할 냉동·냉장·제빙·저빙시설, 보급창고, 유통공급시설을 갖췄으며, 유통·판매를 위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판매시설,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협회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목포수협은 지난해 5월 조합장실을 비롯한 일부 살·과를 이전하고 올해 잔여 업무시설을 전부 이전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지방시대 대전환’ 앞장서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 개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동력관에서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지방시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씨(49세)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받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선정한 15명은 주민자치 분야별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

회(회장 전상직) 주최·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 지사는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천년순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방시대와 주민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넓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만남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과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